



## “녹용은 어떤 체질에도 잘 맞는 약재”

- 본회 임원·지회장 연석회의 특강시 안덕균 소장 발표 -

“녹용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우수한 한약재다”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안덕균 소장은 지난 9월 16일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본회 임원·지회장회의에 앞서 1시간여에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녹용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소장은 “한의원에 따라 간혹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체질을 구분, 녹용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동안 임상적으로 녹용을 사용해본 결과, 녹용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잘 맞는 한약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안덕균 소장

안소장은 또 녹용을 복용하면 △ 혈압이 올라간다 △ 어린이의 경우 머리가 나빠진다 △ 살이 찐다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설명하고 녹용과 함께 사용되는 한약재가 잘못 사용될 경우 이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할 뿐 녹용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음을 확

실효 했다.

안소장은 녹용과 공합이 가장 잘 맞는 한약재로 ‘당귀’를 꼽았으며 당귀와 녹용(귀룡탕)만으로도 훌륭한 약성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약재와 녹용은 따로 분리하여 다리지 말고 함께 다려야 약효가 우수하며 약탕기를 사용하여 약을 다릴 때 다리는 시간이 4시간이 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다릴 경우 유효 성분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 따라서 안소장은 4시간이 넘도록 약을 다려야 할 경우 4시간이 경과한 후 한번 식힌 다음 다시 가열하여 중탕을 제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안덕균 소장은 현재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및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최근 녹용이 신경세포 손상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한편 안덕균 소장 특강 후에는 약 3시간에 걸쳐 2004년도 제2차 임원·지회장 연석회의가 실시됐다.

전국 70여명의 임원, 지회장,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회의에서는 ▲ 자가도살 완화 추진 ▲ 사슴품목, 정부 정책자금 배정 추진 ▲ 양록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 ▲ 우수사슴선발대회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 대정부 및 대외활동 강화 ▲ 홍보 및 지도사업 추진 등의 안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및 강의내용 본문 참조)

**한국양록**